

1. 검정 심사의 기본 방향

2019년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는 행복 교육 실현을 위해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선별하고자 시행되었다. 교과용도서 검정 목적에 적합한 도서를 선별하기 위해 2019년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에서 수립한 검정 심사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 목표 달성에 적합하며, 교육 내용의 오류가 없고 이념적 편향성이 없는 교과용도서를 선별한다.

둘째,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선별한다.

셋째, 검정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사실과 심사 기준에 근거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심의위원 개인의 편향적인 의도나 특정한 관점이 심사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검정 심사 개요

2019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의 중학교 국어 3 심의회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9개월 동안 총 40명의 심의위원(심의위원장 1명, 연구위원 27명, 검정위원 12명)이 기초조사, 본심사, 수정본 검토, 건본 검수 등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 과정을 수행하였다.

심사 결과 교과서 9종, 지도서 9종의 심사본 모두 최종 합격하였다.

[붙임] 1. 2019년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 공고

2. 2019년 교과용도서 검정 심의위원 명단

3. 검정 심사 총평

이번 검정 심사에 합격한 도서들은 교과 기준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이 우수하였다.

- 교육과정 준수 영역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충실하게 반영한 점이 우수하였음.
- 내용의 선정 및 조직 영역에서는 융·복합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 장르, 시대 등을 고려하여 제재를 선정한 점,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한 점이 우수하였음.
-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영역에서는 사실, 개념, 이론, 용어 등이 정확하고 공정하며, 그 의미를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기술한 점이 우수하였음.
-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영역에서는 학습 내용과 활동, 관련 자료와 매체 등이 실생활 및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학생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 중심의 인성 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우수하였음.

이번 검정 심사에 합격한 도서들은 국어 활동·문화 향유에 도움이 되는 지식,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국어의 가치를 알고 국어 생활을 하는 태도에 초점을 맞춰 구성되어 있다. 이전 교육과정기에 편찬된 교과용도서보다 자기 주도적 학습 및 협력적 학습이 가능한 내용 요소가 강화되었으며, 교육 현장에서 수업과 평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돋보였다. 특히 영역 간 통합을 통해 학습량 적정화를 실현함으로써 단위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